

괴저성 피부염

(GANGRENOUS DEMHTITIS)

원 송 대

<한국카아길기술지도부>

개 요

속칭 바터리병이라 한다. 부화후 3~4주령에 발생하여 60~70%의 폐사율을 일으켜 부로일러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원인은 포도상구균이 주된 병원체이므로 포도상구균증이라고 불려왔으나 실은 크로스트리디움(Clostridium)균이 포도상균과 함께 빠다리병을 일으키고 있음이 최근에 알려졌다.

발생시기는 사철발생, 한번 발생된 부로일러 농장에서 재발되는 수가 많으나 특히 겨울철 밀폐된 계사나 장마철에 발생하는 것은 환기불량과 과습도의 계사에서 이병의 전파가 잘되기 때문이다.

이병의 발생은 육성종의 채란계나 부로일러에서 다같이 발생하나 연속입추시기에 부로일러 농장에서 다발하는 것은 역시 환경위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장염은 주로 경피감염이며 과도히 에너지를 제한한 증계에서 부화한 부로일러 병아리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타민 E가 부족한 경우 생기는 경향도 있다.

환경관리에서는 닭들이 서로 쪼는 경우, 설파제중독 어분중독, 곰팡이성중독으로 닭의 조혈기능을 저해할 경우 닭이 빈혈을 일으킬때 쉽게 감염되고 전파된다.

임상증상

세가지 임상형이 있는데

- 1) 초생추의 발생하는 배꼽염.
- 2) 중추에 발생하는 괴저성 피부염(1.2)

3) 성계에서 일반적인 관절염(3.4)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괴저성 피부성염인데 병계의 증상은 식욕부진 운동이 활발치 못하고 깃털의 광택이 없고 원기가 없다. 이때 피하는 출혈성 장액침윤을 보인다. 병변부위는 포도주색으로 독특한 악취가 생긴다.

예방대책

밀사를 피하고 연속입추시 소독과정을 철저히 하고 입추간격을 최소 2주로 한다.

바닥과 기구로 인한 닭의 외부손상이 없도록 해준다. 콕시듐과 회충감염시 이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치료 또는 구제를 잘하고 외부기생충을 구제해야 하며 계두 발생시 복합증상이 생기므로 계두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사료는 하루에 한번씩 깨끗이 다먹도록 부어주는 곰팡이 중독을 피하고 물통청결로 장염을 예방하는 것도 이병의 유발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병계는 빨리 처분해야 한다.

치료대책

1) 비산(arsanilate acid)을 물 50개론에 1온스 용해하여 7일간 음수투여

2) 에리스로 마이신 500g을 물 1개론에 용해하여 5일간 음수투여

3) 페니시린 7,500단위를 물 1개론에 용해하여 4~5일간 투여하는 방법

완전한 치료대책은 병독에 따라 투약기간 및 약의 선택을 달리해야 하나 최근에 상기의 처방을 강조하고 있다.